

12대자주총여와함께하는

# 여학일꾼간부교양학교

이만이 함께 계획한다

진정한 남녀공학의

실천으로

희망의 97을 열어간다

여성해방 인간해방 자주세상으로 달려가는

**민족경복대 12대 자주총여학생회**

## 여는 노래

일어서라 해방의 전사여  
내 조국의 부름이다  
전여대협 깃발을 높이 올려라  
아~아~ 진군이다

자랑스런 조국의 딸 그대  
항일여성전사의 후예여  
반미반독재의 성전에서  
선봉에 우뚝서리라

당당한 세상의 절반으로  
조국의 역사를 개척하리라  
전여대협 깃발을 높이올려라  
자주 민주 통일이 세상을 열자

## 인사 드립니다

11월 선거 때가 생각납니다.  
선거기간이 한달이상으로 지속되면서 지겹고 힘들었다가 아니라  
민족복헌 8천 여학우들을 조금 더 꼼꼼히 만나면서  
가슴벅찼었던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여학생회가 없는 공대나 전전부 여학우들을 만나면서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기도 하고  
고생한다면서 짝 쥐어준 고사리 손에서는 함축되어진 여학우들의  
여학생회에 대한 사랑을 직접 느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사랑과 기대로 세워진 대중간부입니다.

8천 민족복헌 여학우들을 믿고 단대 여학우들을 믿고  
과 여학우들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말은  
작은 단위든 큰단위든 그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어떠한 난관도 뚫을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부르는 노래에 '처음 그 느낌처럼'이라는 가사가 있죠  
우리는 오늘 여학일꾼 모두가 하나됨을 느끼고 뿌듯했었다면  
우리는 그 느낌 그대로 일년을 일관되게 가져 가면서  
어려운 역경은 학우들에 대한 믿음만으로 피식 웃으면서  
우직하게 걸어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윤진이랑 현지가 드립니다!!!

## 여학·일꾼 교양학교는 이렇게 진행되지요

10시 3개의 주제를놓고 교양과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 ①자주적 여학생회론
- ②부분계열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
- ③과여학생회의 위상과 발전적 전망

1시 그동안 교양한다고 배고픈줄 몰랐쥬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맛있는 점심먹는 시간

2시 다시 집중

- ①처지와 고민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이바구 나누는 시간
- ②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체 놀이를 통해 총화해 보자구요

4시 머리가 뻐서지도록 고민했쥬 자 이번엔 서로의 정을 나누자구요  
대동의 장을 펼쳐 봅시다

장소:사회대 여학생 휴게실

시간:1997년 2월 11일 이른 10시

## 토론내용 미리알자구요

### <자주적 여학생회>

우리 사회의 여대생이라고 하면 노동 착취와 봉건적 천대속에서 억압받는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근로 여성들과 비교해 어쩌면 특권적 처지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여대생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고 사회의 중간층 이상의 남성과 결혼하여 계급적 상승을 꿈꿀 수도 있는 존재이며 문화적 생활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살기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면제받고 있다.

또한 대학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여성을 억압하는 지점이 첨예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진보적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가능하게 한다. 대학사회의 이러한 성격은 여대생에게 정치적 각성과 의식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용이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여성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크게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여대생이라는 처지는 자신의 노력이면 여성으로 차별받는 부분을 무마할 수 있다는 의식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개인적인 생활에 매몰되고 위업이라는 부분에 매달릴 수 밖에 없게 되고 사회적인 여성억압에 대한 부분을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학년에 들면서 개별화 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면서도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여학우들의 모습속에는 대학사회가 점점 경쟁의 장이 되어가는 것처럼 자기자신이라는 테두리를 못어나지 못하는 개인화 경향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여성문제를 옳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사회문제도 그 자체만 고립적으로 파악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학우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2차대전 이후 제국주의의 식민지 재편과정에 포섭되어 철저하

게 그 자주적 발전을 봉쇄당해 왔다.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는 식민지 종속발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 여성문제에 식민지적 모순이 부과됨으로써 한층 심회되고 파행적 성격을 띠며 나타난다. 남녀 차별구조를 이용한 제국주의의 노동 착취는 여대생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고 이러한 지배질서 속에서 더욱 공고화되어지는 봉건적 사회관습은 여대생으로 하여금 성차별의 모순에 빠지게 한다. 또한 분단된 상황에서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함에 따라 여성전반에 관한 인식은 물론 복지적 측면의 발전도 가로막혀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한국사회 여성문제의 특징이라 한다면 한국사회 여성운동의 올바른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며 이 속에서 여학생 운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남한의 여학생 운동은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시켜나가고 학원내에서 여학우들의 역할을 높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운동이며 이러한 여학생 운동의 자기지향은 여학우들의 자주적 요구를 짓밟는 제국주의와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변혁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그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여권신장주의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여성의 자주성을 약압하는 근본적인 모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였을 때만이 여학생운동의 이념과 자주적 여학생회를 올바로 구현할 수 있다.

우리 여학우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와 민족의 운명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의 여학생운동은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써 식민지적 모순에서 나타나는 민족문제, 분단이라는 상황이 가져다주는 분단문제, 자본가와 여성노동자 사이의 계급문제에서 비롯되는 여성억압의 근원적인 척결을 위해서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여성이 자기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나서며, 주인 주체로 서기 위해 자기 삶과 민족의 삶을 일치시켜내는 것, 이것을바로 여성자주화 사상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여성자주화 사상을 무기로 여학우들의 본직적 모습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여대생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서부터 자주여성으로의 발전적 삶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토론내용 미리알자구요

###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학생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과에서나 단대에서 여학생회 일꾼으로 생활하다 가끔 학생회 일꾼들과 사업상의 문제로 한번쯤은 부딪히기 마련인데, 그럴때마다 곰곰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학생회와 여학생회는 어떤 관계일까?, 여학생회는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 것일까? 일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에서 학생회와 여학생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전체 학생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학생회가 근거하고 있는 민족복현의 8000여 학우들의 처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여성이라는 고유한 위치로 말미암아 사회적 차별과 억압-흔히 우리가 성모순이라 얘기하는-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으로 분단된 조국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모순에 의해 여대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억압된 형태로 규정되고, 이 세가지 모순을 그 모순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여대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깨어버리고자 결성한 것이 바로 ~~자주적~~ 여학생회 입니다.) 이러한 민족복현 여학우로 가지는 존재기반이 바로 여학생운동의 지향점을 밝혀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학생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일까요? 대학생으로 가지는 사회적 처지가 형성, 발전되어 청년학생으로서 부여되는 사회변혁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학생운동이라 말합니다. 부문운동이란, 급변하고 전문화된 사회속에서 가지게 된 대학생이라는 처지외에 자신이 속해져 있는 처지-동아리 활동이나 신문사, 방송국 등-에 기반해 사회변혁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노래패나 풍물패는 문예운동을, 동아리인들은 동아리운동을 하며 그것들이 결국에는 전체운동으로 모여져 또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며 학생운동의 모습을 다양화, 풍부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여대생이라는 우리의 처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학생이라는 처지외에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지위, 그것에서 비롯되는 성모순을 깨어나가는 여학생운동은 전체 학생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지위는 다른 부문운동이 가지는 사회적 처지와는 다릅니다. 여성이라는 지위는 문예일꾼이나 동아리인들 처럼 자기의 의지에 의해 선택된 것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평생동안을 규정받고 그 방식 역시 아주 오랜기간 동안 치밀하게 공고하게 적용되어 온 것이라 쉽게 본질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학생운동은 다른 부문운동보다 더 책임감 강한 주체의 의지를 요구하며 더 높은 위상을 가집

니다.

다시 한번 여대생으로서의 우리의 사회적 처지에 대해 돌아보겠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지위, 대학생으로서의 지위, 그로인해 갖게되는 성모순, 계급모순, 민족모순. 이것은 결코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라면 성모순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계급모순, 민족모순도 해결해야 하는거야.' 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남한 사회, 그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외세에 의해 유입된 자본주의에 의한 문란한 성문화, 성상품화. 일제시대 그 역시 외세에 의해 굴욕적인 삶을 사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정신대 할머니의 모습. 나라를 지켜준답시고 우리 어머니, 언니들을 마음껏 유린하는 주한미군. 우리의 처지는 이 세가지 모순이 교묘히 결합한 형태에 의해 규정지워 지는 것입니다. 단지 성모순을 깨어버린다 해서 여성해방은 오지 않고, 민족모순, 계급모순을 깨어버린다 해서 여성해방은 오지 않습니다. 이 세가지 모순을 모두 깨어버리는 길- 즉, 여성해방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이 수반되어야만이 진정한 인간해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되어 지는 여학생운동의 모습은 전체 사회변혁운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성이라는 처지에서 근거한 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학생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이 가지는 위치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화와 더불어 여성해방세상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주적 여학생회의 모습입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아직 헷갈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학생회 일꾼들부터 이러한 관점을 잘 견지해야 올바른 여학생운동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어깨위엔 학생회 일꾼보다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쪽저쪽 치우친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활동하는 훌륭한 여학일꾼이 되셨으면 합니다.



# 토론내용 미리알자구요

## <과여학생회의 위상과 그 발전적 전망>

### 1. 들어가며

학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여학우임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혹은 동아리에서 복현골 전체에서 자신의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모습, 그리고 남학생 중심의 분위기·문화에 주눅드는 모습, 암암리에 자행되는 학내 성폭력이나 취업 차별의 장벽에 힘겨워 하는 모습.

이 모든 문제는 여학우들이 학원내에서 여학우이기 때문에 느끼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학우들이 대학의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제 역할을 찾고 여학생회라는 하나된 힘으로 없애나가야 합니다. 즉 여학생회는 여학생이기에 부딪치는 어려움이나 겪게 되는 잘못된 일들을 전체 여학우들이 함께 힘을 뭉쳐 풀어나가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학우들이 느끼는 억압과 차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학우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과에서부터 일어나야 하고, 그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과 여학생회입니다. 즉 과내 생활에서조차 아직은 자신의 제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어딘지 모르게 불청객인듯하며, 성폭력이나 취업 문제에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여학우들이 가장 기초적인 생활 단위인 과에서부터 함께 해결해 보려고 힘을 뭉치는 곳이 과여학생회입니다.

이렇듯 과에서부터 여대생 문제를 고민하고 그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는 과여학생회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여학우들의 조직입니다. 분명 여학우 한명 한명을 자기 삶의 주인, 주체로 세워내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인식하게 해주는 과여학생회를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앞으로 대학내에서 여학생운동을 담보할 수 있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또한 과 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와 단대 여학생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윗단위의 사업을 과 여학우들의 생활로 녹여낼 수 있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이며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윗단위로 총화시켜내는 공간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학 일꾼 한마당에서 앞에서 그 중요성을 입이 닳도록 얘기한 과여학생회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하고,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 날카롭게 비판해보고 우리의 사랑, 자주적 여학생회를 과에서부터 구현해낼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 2. 과 여학생회의 현재적 모습과 문제제기

97년 올해 복현골에서 과 여학생회가 건설된 과는 몇 개과에 불과하며, 그 중에 과여학생회장만 있고 과 여학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집행부 체계까지 갖춘 과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88년 철학과 여학생회 건설이후 여학생회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과 여학생회 사업의 많은 모범을 만들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과 여학생회는 성과점을 올바로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지고 혹은 그 명맥만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과 여학생회를 지도하는 단위인 단대와 총여의 침체와 간부들의 관성화된 모습, 과 여학 일꾼 재생산이 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 과 여학 선거를 할 때 마다 되풀이되는 여학생회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의 논쟁속에서 나타나는 과 학우전반의 인식의 부재 등 주체와 객체 모두에게서 그 이유들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과 여학의 전체적인 모습을 사상, 조직, 대중 영역에서 평가해보고 진정 과 여학이 나아가야 할 발전적 전망은 무엇인지 짚어 보도록 합시다

### 3. 과여학생회의 평가와 발전적 전망

흔히들 과 학생회장과 그 이하 간부들은 누구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갓 들어온 새

내기조차 알고 있는데 여학생회장과 집행부가 누구인지는 한해가 다 끝나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본질적으로 과 여학생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의 부재때문입니다. 즉, 과 여학생회 주체들이 과 여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그들의 의식흐름을 틀어쥐고 주도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과 여학생회가 과에서 튼튼히 자리매김하지 못했습니다. 과 여학생회 주체가 여학우들을 만나고, 그들 사이의 만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여학우들의 삶속으로 뿌리내리는 여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의 든든한 벗이 될 수 있는 방도를 고민합시다.

다음 내용은 영문과 여학생회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했던 사업내용입니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말처럼, 자기 과 역량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과에는 각 학년마다 대표외에 여대표가 있습니다. 학우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뽑힌 각 학년 여대표를 구성된 여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루어가지는 못했으나, 운위의 기능을 강화해 과 여학우들의 의식흐름도 파악하고 여학생회 사업을 할 때 여학생회장이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대표들이 사회를 보게해 진정으로 여학우들의 생각을 반영하려 합니다.

☞학년별 여학생 모임을 가집니다. 즉 개인적이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학우들을 모아 내 자신의 삶, 여성 문제 여학우로서의 당당한 자세 등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는 자리입니다. 작년 한해 전 학년을 아우르는 대중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지는 못했으나, 참여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의 목소리에 큰 힘을 얻었으며 지속적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여학생회 자보란에 <이 주의 여성 정세...>란을 상시적으로 마련하여 신문 확대 스크랩의 형식으로 가져갑니다. 또 과 여언이 있다면 연계해서 스터디 내용을 과방에 자보화 시킵니다.

☞전 여학우를 아우르는 고민을 해봅시다. 많은 학우들이 청강을 하는 '여성과 사회'수업을 이용해 그 수업에 필요한 여성학 책 소개나 자료를 준비해 요구하는 학우들에게 제공하면서 여학생회가 언제나 학우들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심어주면 좋겠죠?

#### 4.과여학생회 체계에 대하여

처음에 지적했듯이 복현골에 있는 과 여학생회 중에서 집행부 체계를 꾸리고 있는 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과여학생회가 여학생회장만 있고 독자적 활동 내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서 문제 연구 소모임 중심의 학회주체로서의 활동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여학생회장은 어디까지 전체 여학우를 대표하는 간부이므로 여학우 전체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소모임 운영 또한 그 내용이 전체 학우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순히 소모임 구성원들 중심의 여학생회가 아니라 집행부 단위가 보장이 안될시 소모임 구성원이 과 여학생회 사업을 풀어나가는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자적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에서는 큰 욕심을 내지말고 소모임이나 학회를 통해 사람을 키우고 이 활동 내요을 소식지나 자보를 통해서 과로 공개하여 과 여학생회 활동 기반을 쌓아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과 여학의 든든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집행부 체계를 꾸리는 것이 맞습니다.

영문과의 경우 과 여학 선거를 하기전에 '영문 일꾼 전진 대회(일종의 간부 L.T)'과 과 총회를 통해 제시한 여학생회의 총노선과 공약을 '여학생회 건설 준비위원회(대체로 3학년이 될 학번내에서 전, 현직 여대표나 여학 집행부에서 일했던 사람,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으로 5명 정도로 구성됩니다)를 꾸려 평가하고 그 속에서 내년 여학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준위에서 여성 문제나 올한해와 내년의 정세를 학습하고, 내년 여학 집행부까지 담보합니다.

여학생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여성학 공부나 여학생회에 대한 교양을 실시합니다. '여성학 강의'를 중심으로 여학 간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쌓고, 여학생회의 필요성, 자주적 여학생회나 부서별 학습을 실시하려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학 간부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문과에서는 아직까지 과 여학의 체계에 대한 부분은 정리되진 않았으나, 여학생회 집행부로 총무부, 선전부, 탁아부를 두고있으며 학생회 산하 학술부에 있는 여성학 연구 소모임과는 끊임없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과 여학의 사업속에서 내용적인 면을 담보하고, 여연 자체내의 사업과 목표가 있습니다. 과 소모임의 형태로 존재하는 대부분의 여연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잡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즉 여성학이라는 학문은 단순히 머리만 뱅뱅하게 하는 학문이 아니라 사회속에서 실천력을 담보해야 하는 학문임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부별 모임시간

### ①과여학생회 간부

과여학생회 간부님들이 각과 모두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직 여학생회간부로서의 감을 못잡고 있을 것입니다. 과여학생회 간부들이 여학일꾼으로 규정받고 자긍심을 가질수 있어야 자기위치에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여학생회 간부로서 느끼는 여학생회를 처지와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자구요

### ②과여학생회장님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아 실천으로 담보해내는 큰 출발점이 과여학생회입니다. 그러하기에 과여학생회장님이 올곧게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여학생회의 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여학생회장님의 올바른 위상정립이 자주적 여학생회 강화의 길일 것입니다. 올바른 나의 위치와 과여학생회의 바른 위상정립을 두고 고민 많이 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민족복현의 여러 여학생회장님과의 만남속에서 고민을 해결해 보자구요

### ③단대여학생회간부

과와는 다른 단대라는 공간속에서 충격(?)이 큰건 아닌지... 단대라는 공간속에서 고민의 폭을 넓혀가며 조직생활에 적응할데에 대하여 드는 고민, 여학생회 간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학생회 간부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해 보자구요.

### ④중앙운영위

이전과는 달리 지도자의 입장에서서 자신이 중심이 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들이 생길것입니다. 올바른 지도는 무엇인지 핵심으로 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고민해 보자구요.

### ⑤여연

어떠한 커리들로 교양하고 있는지, 여연운영을 어떻게해야 잘할 수 있을지, 또 여학생회와의 관계는 그리고 여연의 발전을 위한 전망은 어떤지... 많은 의문들이 드는 시기인 만큼 토론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올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디...

### ⑥탁아

연대사업으로 결코 작은 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탁활을 잘가져가는데 대한 고민들, 자활들을 어떻게 내용성있게 지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 이외 솔하게 제기되는 의문들 같은 직업(?)가진 사람끼리 올바른 실천적 지침을 내어오자구요

## 이런 책 읽어보면 좋지요

###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책이름	출판사	저자
여성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용히 소리질러야 이웃이 듣는다	일월서각	김진숙, 박은주역
수레를 미는 여성들	공동체	손덕수
암탉이 울면-새벽을 여는 여성을 위하여	동녘	최순덕
겉데기를 벗고서3-여대생의 자각과 성숙	동녘	편집부 엮음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위하여		백산서당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한국여성연구회
내가 만난 여자 그리고, 남자	그린비	오숙희
여자는 왜	동녘	서진영
이제는 말하자	참세상	니니 하그린
북한 여성	실천문학	이태영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윤미량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현암사	여성을 위한 모임
여자도 이제는	새날	박은희
여성은 꽃으로도 맞을수 없다	들불	박재신 편저
너무 사랑하는 여인	범우사	로빈 로우러드
이혼이야기	명경	A.알바레즈
재능있는 여자의 운명	전원	잉에 슈테판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라원	콜레트 다우린
영화를 읽는 여성의 삶	YMCA	이영자
남성연구	나라사랑	여성모임사랑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린비	한국여성의 전화
쉼터 이야기	그린비	한국여성의 전화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	동아일보사	한국성폭력 상담소
울타리를 넘어서	공동체	박완서외
하나의 벽을 넘어서	거름	권인숙
딸들아 일어나라 노래하라	형성사	신영복외
여자의 허물벗기	문학사상사	이나미
우리속에 있는 여신들	또하나의 문학	진 시노다 불린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우리교육 출판부	우리교육
삶의 여성학	또하나의 문학	박혜란
불멸의 여인들	김영사	이병철
여성남성 같이살기	웅진출판사	정유성
여성은 남자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서원	김정휘외

## 이런 책 읽어보면 좋지요

###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책이름	출판사	저자
계집팔자 상팔자	고려원	강주현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		이대출판사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조혜정
캠퍼스의 성희롱	동인	기획실
성희롱 이제 비상구가 없다	행림	짐코넬이 셀리콘웨이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현실 문화 연구	
남편은 적인가 동지인가	광화문	곽배희
부부에세이	웅진 출판	오숙희 정진화
열린 가족 속의 여성	지평	이기숙
외도 결혼제도의 그림자인가	형성사	김예숙
이혼, 그 새로운 만남	아침	강은희
우리속에 숨어있는 힘	또하나의 문화	미리암 그리핀스
우리시대 결혼이야기	여성 신문사	김효선
애물단지야! 눈물 단지야!	한계레 신문사	
한국 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	김주숙
우리 속의 남신들	또하나의 문화	진 시노다 불린
문학과 성의 이데올로기	세미	송명희
사회학자들이 본 남성과 여성	한울	박미혜
왜 이혼 못하는가	현민	장정순
이혼 또하나의 선택	여성사	사잇소리
위안부	창작과 비평	조지혁스

### 여성 해방의 이론

여성학 강의	동녘	한국여성연구회
여성론	까치	A.베벨
제2의 성	을유 문화사	시몬느 드 보바르
여성 해방과 성의 혁명	일월 서각	로즈마리 루터
성의 변증법	풀빛	S파이어스톤
여성 해방의 이론체계	풀빛	신인령 역
가족의 기원	아침	F앵겔스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한마당	엘리자레스키
세계여성사	일월서각	수잔 브라운 밀러
무엇이 여성 해방인가?	백산서당	김혜영 역
성평등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이영자 외 3인
XY 남성의 본질에 대하여	민맥	엘리자베트 바덴테

## 이런 책 읽어보면 좋지요

책이름	출판사	저자
여성과 한국 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여성한국사회연구소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여성사	미셸 바렛
여성 해방의 정치학	여성사	린지러먼
페미니즘과 계급 정치학	여성사	미셸바렛 외
여성과 범죄	나남	프랜시스 하이 덴슨
한국 가족 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여성사회연구편
가족과 한국 사회	경문사	여성사회연구편
여성해방론과 인간 본성	이론과 실천	엘리슨 제거
여성 해방 이론의 쟁점	태암	하이드하트만 린다번함외
현대 여성 해방 사상	이대 출판부	헤스터 아이젠슈타인
남성을 위한 여성학	한국 여성 개발원	박혜란
여성 미술 이데올로기	시각과 언어	로지카파커, 그리젤다
성과 현대사회	파란나라	우리사회연구회
여성운동가 정치이론	녹두	이선희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우에노치즈코

### 여성운동사

#### 한국

한국 여성사1,2,3	이대출판부	이대한국여성연구소
한국 여성 노동 운동사	중원 문화	이태호
한국 여성사-근대편	플빛	한국 여성 연구회

#### 세계

세계 여성 운동	동녘	김지해 역음
혁명기의 여성들	두레	김성원 역
제3세계 여성운동	창작과 비평사	여성 평우회
중국 여성 해방 운동	사계절	에리지베스크룩
소비에트 여성은 말한다	앞과 힘	H. 버제스
어머니들	한마당	도미틸라
산디노의 딸들	우리	M. 렌들
하늘의 절반	동녘	클로디 브로이엘
여성 이중의 굴레	유월	토니 클리프

### 여성 문예

#### 여성지

여성과 사회 1,2,3,4,5,6	창작과 비평사	한국 여성 연구회
사무직 여성		한국 여성 연구회

## 이런 책 읽어보면 좋지요

책이름	출판사	저자
또 하나의 문화1-10호	또하나의 문화	
시집		
눈물의 웃고름 깃발삼아	동광출판사	차정미
눈물꽃	실천문학사	고정희
여성해방출사표	동광출판사	고정희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푸른 숲	장정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시대평론	강은교外
누가 내누이를 묻거든	연구사	채광석外
소설		
고삐	풀빛	윤정모
북두칠성 상,하	석탑	김진옥
절반의 실패	동광	이경자
꼭추네 사랑	동광	이경자
서있는 여자	작가정신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삼진기획	박완서
나는 나1,2	청하	유디뜨 안 베르그
결혼의 자격	풀빛	후지와라 신지
부엌신의 아내	대흥	에이미 탄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성현출판사	패니 플래그
길찾기-소설로 보는 여성문제	동녘	송지현
벗	살림터	백남룡
반	한성	카인 빈
세상의 모든 딸들	홍익 출판사	엘리자베스 M.토마스
올란도		버지니아 울프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살림	양귀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문예마당	공지영
신에게 딸이 없다	고려원	안드레아 드워킨
혼자 눈뜨는 아침 상,하	푸른숲	이경자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	삼신각	공선옥
자기만의 방	예문	버지니아 울프
뺨벌	공간사	안일순
세월	문학동네	김형경
아마조네스의 꿈	푸른숲	비바라 워커
여인들의 신전	문학사상사	앨리스 워커



## 이런 책 읽어보면 좋지요

책이름	출판사	저자
너무 사랑하는 여인	범우사	Robin Norwood
길위의 집	민음사	이혜경
여자는 어떻게 죽어가는가	가나	한지연외
주부가 쓴 성이야기	지성사	이재경, 김영미
꿈꾸는 인큐베이터	현대문학	박완서
남자의 가정	풀빛	정인택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장원	김수련
초록빛 아침	민음사	이청해
유리 파수꾼	동녘	엄혜숙, 오현주
여성주의 소설	책나무	하용백

### 교육

#### 육아

반쪽이의 육아일기	여성신문사	최정현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101가지 방법	새터	비키 렌스키
함께 크는 우리아이	예문	버지니아 올프

#### 성교육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 어떻게 할까	돌배개	이화연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신앙사	그레테 파거쉬트림
엄마,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달라요	사계절	김남선 글/정승각 그림
18cm여행-개인편, 사회편	회성	데이비드 루벤
돌려보는 일기장	여성사	출판집단 사잇소리
여성을 위한 의학책	심지	미쓰미네 히사미
너랑 나랑 뭐가 다른데	천재 교육사	우리누리
섹스북	박영률	권터 아멘트
성교육	석탑	구성애
부부가 함께 배우는 성		

##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 성과사랑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 프라하의 봄 / 덩쿨장미 / 내겐 너무 예쁜당신 / 피아노 /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 이스트윅의 악녀들 / 해리가 셸리를 만났을 때 / 핸드메이즈 테일 /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 가족 결혼제도와 여성

한나와 그의 자매들 / 결혼기념일 / 우디알렌의 부부일기 / 찻잔 속의 달 / 장미의 전쟁 / 또 하나의 시작 / 국두 / 허공에의 질주 / 로말드와 줄리엣 / 크레이머대 크레이머 / 문스트릭 / 어둠 속의 외침 / 적, 그리고 사랑이야기 / 맨하탄 미스터리 / 하이힐 / 실크우드 / 철목련 / 유리엘의 웨딩 / 결혼 이야기 / 나인먼쓰 / 네프르와 / 전사의 후예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사랑을 기다리며 / 박봉곤 가출사건 / 돌로레스 클레이본

### 도전하는 여성, 강한여성

칼라퍼플 / 까미유 끌로델 / 델마와 루이스 / 작은 악마 / 추억 / 완령옥 / 이사벨 에머하트 / 샤넬 / 그대안의 블루 / 그들만의 리그 / 브로드캐스트 뉴스 / 워킹걸 / 퍼블릭우먼 / 에일리언 / 양들의 침묵 / 올란도 / 바그다드 카페 / 블루스틸 / 니키타 / 레즈 /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 미나 타넨바움 / 두여인 / 301,302 / 내 책상위의 천사 / 블루 / 어둠선 / 카우걸 블루스 / 네온속으로 노을지다 / 투 다이 포

### 자본주의, 성폭력과 향락문화

소피의 선택 / 인터걸 / 피고인 / 립스틱 / 적과의 동침 / 거리의 딸 / 택시 드라이버 / 브룩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 굴레를 벗고서 / 포화 속의 마리아 / 엠마와 부베의 사랑 / 안나이야기 / 줄리아 / 노마레이 / 의문의 실종 / 어머니의 아들 / 오피셜 스토리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폭력남편 / 최후의 판결 / 벤디드 퀸 / 칼라퍼플 / 개같은 날의 오후 / 귀주이야기 / 티켓 / 낮은 목소리

### 왜곡된 여성상

위험한 정사 / 요람을 흔드는 손 / 나인 하프 워크 / 귀여운 여인 / 최종분석 / 그리프터스 / 블루벨벳 / 비터문 / 마더스 보이 / 죽어야 사는 여자 / 위험한 독신녀 / 원초적 본능

인문대여학생회

짱 장윤영(영문95) 012-729-3644  
 연사부장 지우진(동양어문96)015-721-0464  
 여연부장 김혜경(역사철학96)0542)71-3805  
 영문과여학생회  
 짱 천미순(95) 012-741-9552  
 총기부장 박지현(95) 012-726-3770  
 타아부장 김현주(96) 0522)73-8086  
 선전부장 이정화(96) 012-470-2865  
 철학과여학생회  
 짱 김수련(95) 012-469-7952  
 총기부장 조영선(96) 851-3093  
 타아부장 김주란(96) 012-724-0483  
 김연정(96) 012-750-6878  
 선전부장 황영경(96) 012-755-5894  
 국문과 여연 성교선(95) 015-731-3017  
 영문과 여연 이지은(95) 012-467-7880  
 사학과 여연 이정미(95) 015-706-5317  
 타아 노혜영(95) 812-6613  
 불문과 타아 여창숙(96) 015-983-7202  
 독문과 여연  
 타아

농대여학생회

짱 김애경(95) 015-736-3771  
 여연부장 이정순(96) 015-7600-4695  
 선전부장 김현경(96) 015-718-5241  
 편집부장 노상숙(96) 557-7386  
 농학과여짱님 박선영 015-721-6851  
 농토목과여짱님 손미향 983-0503  
 입학과여짱님 박선혜 012-759-6833  
 농생과여짱님 김현지 012-759-6833  
 동자과여짱님 조수원  
 농경과여짱님 정효진 015-703-5756  
 농기계과여짱님 송희진 015-737-5623  
 임공과여짱님 김수정 012-742-8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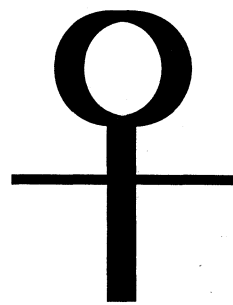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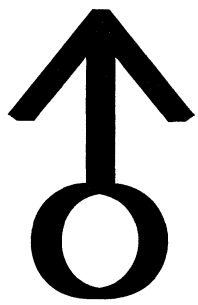
공대여연 이현영(컴공94) 015-738-4997  
 컴공과여짱 서연경(95) 015-725-3475  
 화공과여장 배혜정(95)

사범대여학생회

짱 조자경(교육94) 012-714-0820  
 교육부짱 최병연 012-746-5927  
 국교부짱 박지은 015-751-1660  
 영교부짱 배인향 012-756-7225  
 독어부짱 이정옥 012-729-0065  
 불어부짱 구교현 012-485-7791  
 지리부짱 정은하 012-485-5457  
 일사부짱 박정혜 015-726-3542  
 역사부짱 도경숙 015-744-6313  
 윤리부짱 정경아 012-730-0775  
 수학부짱 최정숙 015-720-9530  
 지학부짱 김미경 015-722-2099  
 화학여짱 권윤주 012-742-1220  
 생물부짱 손희정 012-721-2981  
 가정부짱 이주현 015-727-6439  
 체육부짱 정은미 012-491-6288

사회대여학생회

짱 정옥경(95) 012-729-0554  
 사무국장 이수정(95) 015-751-5176  
 여연부장 남미림(96) 955-8458  
 정선희(96) 012-598-5739  
 선전부장 김분선(96) 012-705-9903  
 연사부장 진은희(96) 012-746-1725  
 지리과여학생회  
 짱 은지영 012-1076-6650  
 총무부장 장혜란 012-723-0921  
 기획부장 이해정 012-740-8533  
 학술(여연) 김경희 012-597-2298  
 편집부장 이보영  
 선전부장 권경희  
 함정선 012-7601-3126  
 심리여연 엄진령 012-740-1994  
 성미라 015-739-5921  
 박소영 012-763-8114  
 권미경 012-451-6366  
 신방여연 김은영 012-719-2243  
 문정여연 남귀숙 012-750-5652  
 신귀영 012-750-6917  
 이영림 015-717-9827  
 박미진  
 다글 박재현 015-745-0136  
 박병기 012-757-2446



• 여성해방 • 인간해방 • 자주세상으로

달려가는 12대 자주총여